

나의 방만한 책임기에 대한 고백

인문적 교양을 위한 고전의 중요성

최태만

미술평론가

나의 독서 습관은 다소 방만한 편이다. 이를테면 일관성을 가지고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책을 읽는다고 하면 기분내키는 대로 이책 저책을 뒤진다고 할 정도로 체계가 없는 것이 나의 독서하는 버릇이다. 이런 책임기의 버릇은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도 그대로 나타난다.

신문이나 잡지, 학술지에 실린 신간소개나 서평을 관심있게 읽어두었다가 서점에 나가는 기회에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거의 대부분 사두어야 안심이다. 서점을 나올 때 양손에 든 무거운 책보따리를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들며 다 읽지도 못할 책을 한꺼번에 사는 것이 혹시 지적 허영이 아닌가 스스로 의심이 생길 정도로 비대해져버린 나의 책에 대한 욕심이 이런 무분별한 책임기의 원인은 아닐까 생각한 때도 많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주로 미술사나 현대미술, 미학과 관련한 책을 사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주로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편이다.

고교 은사의 지적 영향

책에 대한 나의 욕심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한 선생님께서 받은 영향이 크다. 화학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은 입시에 대한 중앙감 때문에 문제지 한권 더 보는 것이 훨씬 더 급했던 우리에게 수업시간 오십분 중 거의 십분 이상을 문학, 철학에 대해 말씀하셨고 더러 고등학생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책을 추천기도 했다. 물론 대학에 가서 독서하라는 조건부 추천이었지만 나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참고서나 문제지를 파는 학교 앞 서점이 아니라 시내의 큰 서점에 가서 그 책들을 샀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의 짧은 틈을 이용해 그 책을 꺼내 읽을 때면 급우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보거나 혹은 빈정대기조차 했지만 그 당시 그런 책이냐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무척 행복했다. 덕분에 고등학생으로서는 비교적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대학에 진학해서 큰 도움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어릴 때부터 화가가 되기를 꿈꾸었던

나는 전공을 선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문과로 진학할 것인지,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대로 갈 것인지로 오랫동안 고민했다. 결국 미대로 진학했지만 이미 읽기와 쓰기가 몸에 밴 탓인지 삼학년 때부터는 그림그리기보다 글쓰기에 더 열중했다. 가끔 동기들이 실기실이나 도서관에서 책읽는 모습을 본 적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면 어쩔 수 없이 글쓰는 것을 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잡독성의 버릇

대학 재학중에 나는 교수님들로부터 인문학적 교양을 쌓아야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지도를 받은 적이 많다. 문리(文理)에 대해 모를 때 화학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인문학적 교양이란 말이 대학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것이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의 분위기는 사회과학 서적이 압도적으로 독서되던 시기였다. 나 역시 그 환경을 거역하지 않고 밤을 새워

지금처럼 지식과 정보가 인스턴트화하고 있는 시대일수록 고전의 독서가 필요하다고 감히 생각해본다. 내 스스로 어떤 책을 읽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이 마구잡이로 읽는 영터리 습관에서도나마 고전이 자주 눈에 들어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고 독서서클을 조직하여 뜻이 맞는 선배나 동료들과 토론과 열띤 논쟁을 하곤 했다. 나의 비평적 방법론이 예술사회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잡독성인 독서버릇은 나의 관심을 사회과학 서적에만 묶어두지 않았다. 지금껏 가끔 꺼내 읽는 책 중에서 당시 틈틈이 읽었던 책을 들라면 단테가 쓴

《신곡》과 밀턴의 《실락원》이 있다. 다같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이 가진 정신적 깊이가 나를 매료시켰다. 이미 유물론적 세계관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곡은 그리스·로마신화에 대한 독서를 채근했고 세계사를 공부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그리스·로마시대와 중세, 르네상스 미술의 도상을 해석해 놓은 책을 독서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두권의 책은 언제나 나에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임에 분명했다. 요즘도 가끔 읽고 있기는 하지만 비록 번역본이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완독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나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윌리엄 블레이크의 석판화들, 로댕의 〈지옥의 문〉을 볼 때면 단테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삼 실감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다같이 단테의 신곡을 바탕으로 창조된 것이다.

인스턴트시대 고전의 중요성

대학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있는 책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프레이저가 쓴 《황금의 가지》가 있다. 현대인류학에서 이미 고전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비전문가인 나에게 이 책은 내가 모르는 세계의 신화와 주술, 생활규범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려주고 있어 흥미를 끈다. 특히 최근 신화와 성(性)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프로이트나 융, 바타이유의 책을 읽는 시간 이상으로 이 책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황금의 가지》가 나에게 제공해주는 것은 새로운 학설이 아니라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나의 상상력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이다. 가끔 강의중에 학생들에게 이 책에 대한 나의 독후감을 들려주기도 하지만 수강생들이 나의 경험을 얼마나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특히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현대미술의 진행과정을 지켜볼 때 학생들에게 내가 대학때 느꼈던 지적 만족감만 가지고 독서를 천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지식과 정보가 인스턴트화하고 있는 시대일수록 고전의 독서가 필요하다고 감히 생각해본다.

“문리를 깨닫고 싶으면 고전을 중요시하라”

이 말은 옛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 고등학생 시절에 화학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그렇다고 내가 문리를 깨달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말의 중요성은 어렵듯게나마 느낄 수 있다. 실용적인 책의 수요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난 이 고도정보화사회에서 이제 갓 삼십대 중반인 내가 고전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소로운 일인지는 모르지만 독서를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벽찬 지적 호기심을 느낄 때도 많고 마치 낙인처럼 기억에 오래 남는 이 책들의 독서야말로 인문학적 교양을 강조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실감하게 만든다. 내 스스로 어떤 책을 읽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이 마구잡이로 이 책에서 저 책으로 옮겨다니는 영터리 습관에서도나마 자주 이 책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



어수룩한 책 사랑 이야기

그 깊이에서 발견하는 참된 책사랑

이현주
목사·시인

무엇이든 너무 흔하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다. 요즘 책에 대한 나의 소감이 그렇다. 가끔 서울에 갔다가 종로서적이나 교보문고엘 들러보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신간서적의 태산 앞에서 주눅이 들 정도가 아니라 현기증이 일기까지 한다. 그리고 그 표지들의 현란함은 또 어떤가? 마치, 이래도 안 살테냐? 하고 독자를 으박지르기도 하는 듯 그 꾸밈이 과연 대단하다.

컴퓨터 문명의 덕

내가 아는 한 시인은 벌써 수년 전 애긴데 1년에 30권쯤 저술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말로는 컴퓨터의 놀라운 성능을 잘 활용하면 이틀이나 사흘에 책 한 권을 쓰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의 굉장한 계획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할 말이 그렇게도 많은 말인가 하는 생각에 좀 안돼 보이기도 했다. 《노자》에 ‘다언삭궁(多言數窮)’이라는 문자가 있다.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힌다는 뜻이다. 술병에서 술을 따를 때에도 술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꿀꺼덕거리며 잘

따라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반 병쯤 남게 되면 술술 잘 나온다. 할 말이 가슴에 가득 차 있으면 그놈이 입 밖으로 나오기가 오히려 힘든 법이다.

쏟아져 나오는 저 책들이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책과 더 가깝게 하고 책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줄까? 내 생각에는 오히려 그 반대일 것 같아서 답답하기 까지하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컴퓨터 문명의 덕을 토포하고 입을 다물고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쏟아져 나오는 저 책, 책, 책의 홍수를 누가 다스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미 홍수는 시작되었고 문제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 남느냐이다.

어떤 이들은 오디오와 비디오의 발달로 인쇄매체가 사양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럴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나오면 나왔지 ‘책’ 자체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여기 디스켓 한 장에 브리태니커 한 질이 모두 들어 있다고 하자. 그것을 보고 이제 책은 사라졌다고, 소용이 없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브리태니커라는 거대한 책이 그 모양새를 바꾼 것일 뿐이라고 말해야 옳다고 본다. 당분간 이런 형태의 ‘변모’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책’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우리 앞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우리는 이 엄청난 정보 홍수에서 사람답게 살아남을 궁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읽히는 책

옛날, 공자는 《주역》(周易)을 하도 많이 읽어서 철근이 세번인가 네번인가 끊어졌다고 한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었다는 얘기는 일단 그 책을 충분히 잘 읽었다는 얘기와 통한다.

좋은 책과 그렇지 못한 책을 분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책을 읽은 사람이 두번 세번 거듭 읽는지 여부로 알아보는 길일 것이다. 생명력이 있는 책은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읽힌다. 우리가 보통 경(經)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책이 다 그러하다. 좋은 책을 잘 대접하는 길은 책장이

너덜거릴 만큼 많이 읽는 것이다. 나는 어느 집에 갔다가 가죽 껍질에 금박을 입힌 성경책이 유리문을 단 고급 책장 속에 고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성경을 저토록 푸대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인에게 무슨 말을 하지는 못했다. 다만,

너무 흔하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태산같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의 책들 앞에서 오히려 주눅이 들 정도다. 한권이라도 열번 이상 읽었거나, 너무 좋아 일기문장투까지 닮을 정도였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구하기 위해 몸고생, 마음고생을 마다하지 않던 옛시절의 참된 책사랑이 생각한다.

저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면서 가장 안 읽히는 책이라고 말하는 건가 싶었다.

나도 철근이 끊어질 정도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책 한 권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읽은 경험은 있다. 아마 열 번 정도는 읽었을 것이다. 제목은 옛날 학원사(學園社)에서 펴낸 《로빈훗의 모험》. 중학생 때였다. 로빈훗과 리틀존이 외나무 다리에서 힘을 겨루는 장면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었는데 지금도 눈에 선하다.

또 기억나는 책은 정음사(正音社)에서 펴낸 《삼국지》.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읽었는데 약간 한문투의 문장이 어려우면서도 매우 그럴 듯했고 덕분에 뒤에 나온 다른 작가들의 삼국지는 도무지 싱거워서 읽을 수 없었다. 최영해 선생의 번역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신세대의 눈에는 어떻게 읽힐는지 모르나 내 견해로는 《삼국지》에 한해서 아직도 그만한 번역이 없다.

김용환 선생이 <학원>에 오랫동안 연재한 만화 《코주부 삼국지》도 잊을 수 없다. 조자룡이 장창을 머리 위에 꼬나들고 바위산을 말에 올라 달려 내려오며 “상산

조자룡이 예 있다!” 소리를 지를 때에는 산천이 부들부들 떠는 것만 같았고, 나는 그만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의 바느질 잣대를 비슷하게 꼬나들고는 “상산 이현주가 여기 있다” 하면서 숨을 벌떡거리곤 했다.

스승의 서재에서 흠치기도

대학교에 들어온 뒤 한 해 여름을 온통 이상(李箱) 읽기로 보내버린 기억도 남아 있다. 그의 수필과 소설도 좋았지만 특히 시가 좋았다. <오감도>는 많이 읽다보니 거의 전편을 암송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 그 시절에는 일기(日記)도 “오늘은 참 힘든 날이었소.” 어찌고 이상(李箱)의 <봉별기>에 나오는 문장투로 썼다.

그의 전집(全集)을 구하기 위해 충주에서 서울까지 다섯 시간을 먼지 나는 신작로를 달려 청계천 고서점을 하루종일 뒤진 끝에 겨우 발견하여 다시 다섯 시간 버스로 귀가할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그렇게 고생하여 산 책 세권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나에게는 스승의 서재에서 흠쳐온 책이 한 권 있다. 그 책은 지금도 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의 《The Prophets》(예언자들)라는 영문으로 된 책인데 장공(長空) 김재준 박사 서재에서 주인에게 가져간다고 말하지 않고 가져왔으니 흠친 셈이다. 물론 나중에 고백을 하고 그것을 우리 말로 옮기기도 했으니 고약한 도둑놈이라고까지 할 건 없겠다.

어수룩한 책 사랑 이야기라고나 할까? 이런 별로 신통할 것도 없는 형설수설을 늘어놓는 것은, 주체를 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나오는 저 책-홍수 속에서 거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남는 길은 그래도 별 도리 없이 책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다.

한 남자의 진정한 사랑은 여러 여자를 상대로 할 때보다 한 여자를 상대로 할 때 제대로 꽃을 피우지 않겠는가? 참된 책사랑은 넓이의 차원이 아니라 깊이의 차원에 있다. ❖

